

##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김 두 섭\*\* · 박 경 숙\*\*\* · 이 세 용\*\*\*\*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40-50대의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의 심층적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태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전국적인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세대간 근접성, 지원기능, 그리고 노부모 부양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년층의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별거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관계에는 중년층의 사회계층적 지위나 노부모와의 정서적 연대와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층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관과 노후대책 행위는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접성, 지원관계, 노부모 부양관 모두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가족의 부양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지원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단어: 중년층, 세대관계, 노후부양관, 가족부양, 노후대책

\* 이 연구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 I. 머릿말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출생률과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여 왔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형태에 접근하게 되었다(김두섭, 1993). 그리고 그 결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6년에는 3.3%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 5.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7.1%, 그리고 2020년에는 1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1970, 1996, 1999).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체계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노인의 경제 및 의료복지를 가족에 주로 의존하여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가족부양체계의 물질적이고 규범적인 기초가 변하고 있다. 우선,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권태환과 박영진, 1995; 이가옥, 1994).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동거생활과 가족수발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성재 외, 1999; 김익기 외, 1999; 차홍봉, 1998). 이렇게 노인의 거주형태 및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관계가 변화한 것은 가족부양에 대한 노인의 태도 지원의 필요 정도가 달라진 것에 못지 않게 중년층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변화된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현재의 중년층은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자녀화(少子女化)와 가치관의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기에 이를 즈음에는 현재 노년층의 경우보다 가족부양을 기대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년층은 현재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노후부양관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자녀세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다(김익기 외, 1999; 이가옥 외, 1994; 정경희 외, 1998). 그러나 노부모와 중년층 자녀간의 세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시각에서 가족부양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중년층이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주형태, 지원관계, 노부모부양에 관한 태도에 대한 이해는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년층이 노부모와 이루는 세대관계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전국적인 면접조사가 1999년 9월-10월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먼저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유형화하고, 다양한 세대관계를 규정하는 중년층과 노부모의 특징을 살펴본다. 세대관계는 중년층과 노부모사이의 근접성(동거), 지원기능, 그리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중년층의 태도를 종합하여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각 차원이 서로 조합되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지배적인 세대관계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에 대한 태도와 노후대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 세대관계와 이와 대비되는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 사이에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행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 1. 세대관계의 변화

그 동안의 거대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세대교체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 교육, 여가 등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이 생애주기 및 연령규범에 의해서 충화되어 있는 가운데, 각 세대의 생활양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가족구조의 변화도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져 개인이 성장기에 경험한 가족구조와 스스로 가족을 형성할 즈음 경험하는 가족구조는 차이가 크다. 또한 세대간 부양관계에 대한 태도 역시 연령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1996, 1999). 현재의 중년층이 노후생활에 이를 시점에는 지금보다 가족부양의 규범적 강제력이 훨씬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세대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이론화작업이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세대관계 이면의 심층구조를 분석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세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규칙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근접성과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교환, 그리고 그 교환을 규정하는 규범, 연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대관계의 개별 하위부문이 변하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어떠한 부문은 보다 빠르게 변하고, 어떤 부문은 상당히 정체성을 보이는 등 변화정도에 있어 부문간 불일치현상이 흔히 나타난다. 특히 사회변동속도에 비례하여 세대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그 결과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이질적일수록 세대관계의 개별 하위부문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방식은 복합적이며 상충적인 모습을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관계의 한 측면에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편파적인 이해에 머물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대관계의 주요 하위차원으로 서 세대간 근접성, 세대간 지원관계, 그리고 지원의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위차원간의 상호연관성과 그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세대간 근접성

세대사이에 지원과 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접촉과 근접성이 필요하다. 특히, 세대간 동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 정서적 지원관계의 개연성을 높이는 세대연대의 지표로서 이해되어 왔다(Litwak, 1985; Shanas, 1980).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빈번한 인구이동 속에서 세대간 동거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대신,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대간 동거는 연대의 한 지표일 뿐이며, 오히려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적은 층에서 발생하기 쉬운 빈곤의 지표로서 이해되기도 한다(Litwak, 1985).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와 유사하게 세대간 동거현상이 아직 광범하게 관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관계의 규범적 이상형은 노부모가 그들의 장남가족과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었다. 여기서 규범적이라고 덧붙인 것은 실제로는 확대가족이 지배적인 가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부족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확대가족은 한국 역사에서 결코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확대가족도 노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Kwon, 1984).

최근에 이르러 확대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은 1966년에 66.7%이었으나, 1985년에 78.3%, 그리고 1995년에는 80.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권태환과 김두섭, 1990; 통계청, 1996).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혼자 혹은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도 1966년

의 7%에서 1990년에는 30.0%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1990; 권태환 외, 1995: 350).

세대간 동거경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60-1970년대에 두드러졌던 젊은 층 중심의 도농간 인구이동,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노인의 가족부양관과 경제생활, 건강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우선, 1960-1970년대에 미혼 혹은 기혼의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친족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핵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었다(은기수, 1997).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직업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한 직업구조의 발달은 세대간 직업에 있어 이질성을 조성하였다. 특히,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육구는 여성중심의 가족부양기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보다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모선희, 1999: 100). 따라서 노인가구의 핵가족화가 강화된 이면에는 노인의 사생활에 대한 선호나 노인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된 정도보다는 자녀의 가족부양관이나 경제적 여건 그리고 도시화와 같은 구조적 제약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Park et al., 1999).

세대간의 동거가 감소하는 경향과 아울러 동거의 성격 역시 변하고 있다. 흔히 노년기의 동거는 노인의 빈곤이나 질환에 대한 부양의 필요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동거 상황에서 세대간에 교류되는 지원관계는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거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손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organ and Hiroshima, 1983). 다반조와 찬(DaVanzo and Chan, 1994)의 말레이시아 가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일수록 세대간 동거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지역의 높은 지대로 인하여 젊은 층이 주택마련이 어려워 부모 집에 함께 살면서 가구생계비를 절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의 규범이 강하였고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한 아시아의 여러 사회에서 세대간 동거가 가구의 생활전략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Tsuya and Martin, 1992).

## 2) 세대간 지원관계

세대간에 교환되는 지원의 종류는 금전적 지원, 일손 도움,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하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로부터 이득이 보장되어야만 한다(Dowd, 1975). 물론, 관계로부터의 대가가 교환관계를 이루는 쌍방간에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통한 이윤, 보상의 교환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관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환이론의 입장에 기초할 때, 노년기에 흔히 겪게 되는 은퇴, 무역할, 소외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권력을 노인이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파생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Dowd, 1975; Stoller, 1985).

세대간 지원관계를 이해하는데 교환이론적 접근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론의 몇 가지 중요한 전제에 대하여 재고찰이 필요하다(Gouldner, 1960). 우선, 관계의 호혜성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환되는 지원은 대부분 상이하며, 동일한 지원의 교환에서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치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세대간 지원관계의 균형은 전 생애를 거쳐 변할 수 있다(Aquilino, 1990; Eggebeen and Hogan, 1990; Rossi and Rossi, 1990). 세대간 교환관계는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와는 달리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는 장기적인 관계이다(Hill and Hansen, 1960; Rossi and Rossi, 1990). 따라서 생애과정의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지원관계는 그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 지원관계와의 연관 속에서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세대관계의 강도는 생애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생애의 조건이 급격히 변하거나 역할변화의 속도가 클 때, 역할적응의 욕구가 클 때, 혹은 새로운 역할취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세대간의 지원관계도 활발해진다. 반면, 반대의 경우 세대관계의 강도는 약해지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의 현재성과 잠재성을 구별하여 세대관계의 강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대간에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일상적 수준에서의 지원관계는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위기나 사건에 처하였을 때 세대관계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대가 경험한 고유한 생애조건도 세대간 지원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결혼시기의 연장, 핵가족 형성시기의 지연, 독신생활의 증가, 출산시기의 조기화 및 지체화, 출산률의 감소, 이혼과 재혼의 증가, 젊은 세대의 생애조건 불안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사회의 가족구조변화가 세대간 지원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Bengtson, 1993; Cooney, 1989; Hogan et al., 1993; Sliverstein and Bengtson, 1997).

한국의 경우,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지원기능은 그 지원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노후의 경제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선호되는 지원자가 배우자이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는 배우자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모선희, 1999). 또한, 신체적 서비스 부양에 있어서도 자녀의 역할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많은 가족이 부양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 앞서, 정서적 부담을 토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차홍봉, 1998). 신체적 부양은 주로 배우자나 며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며느리는 배우자에 비하여 부양에 있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는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부양역할을 수행하는데 신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성재 외, 1999).

이렇게 중년층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그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의 지원기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년층 자녀의 노부모 부양기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배경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의 영향이다. 전통적인 가족사상은 장자가 가계를 계승하고, 노부모를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을 규정하였다(Kwon, 1984). 유교 양반계급을 통해 강조된 효 이념은 가장과 다른 가족성원간의 권위-의존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효 규범에 기초한 가족부양관은 현재 상당히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어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신용화와 장경섭, 1996; 장경섭, 1994, 1995).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년층 자녀의 지원이 전적으로 가족부양관의 규범적 강제력에서 비롯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년층 자녀의 부양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가족부양관의 규제력과 아울러, 한국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노인은 미국이나 일본노인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건강상태가 열악하다(日本總務處, 1997).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큰 노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수준의 서비스 공

급체계가 아직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한국노인 중 대다수가 개인연금이나 사회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녀로부터의 도움이나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정경희 외, 1998).

### 3) 세대관계의 규범성

세대간 지원의 범위와 한계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다. 이를테면,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세대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관계에 대하여 긴장이 클 수 있다. 반면, 생애를 통하여 개인보다는 가족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가족성원들의 안녕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부양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Park, 1998).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강한 가족부양관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은 일본의 노인보다 노후생활을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日本總務處,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지원관계를 규정하는 효 이념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효 사상에 따르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노부모를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관행은 인구가동이 적은 상황과 조화를 이룬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직업상황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 노부모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들은 농촌지역에서 노부모의 직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노인층 역시 자녀로부터의 무조건적인 부양을 당연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는다(Kwon, 1984; 박경숙, 1999). 노인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효는 자녀가 부모의 부를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공과 독립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부양하는 것, 부모를 받드는 것, 정신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 모두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효의 덕목으로 강조된 사항이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고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박경숙, 199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전통적인 한국의 세대관계는 동거지향적이고,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하며, 효 사상을 근간으로 한 강한 가족부양관의 특징을 띠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세대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내용으로서는 동거경향의 약화, 세대간 지원기능의 다양화와 더불어 세대간 독립현상의 증가, 그리고 효 사상의 내용적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핵가족화, 그리고 가족의 부양기능과 가족부양관의 변화를 세대간 고립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일축하기는 어렵다. 산업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리적 이동은 물리적 근접성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다양한 통신시설의 발달은 물리적 거리에서도 세대간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세대간 지원 형태도 자녀의 일방적인 노부모 부양에서, 노부모의 자녀지원, 쌍방간의 호혜적인 지원관계,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무지원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강한 규범성을 유지하는 중년층과 더불어 가족부양을 상황적, 조건적으로 인식하는 중년층도 존재한다.

요컨대, 현재 세대관계의 모습은 다양하다. 세대관계가 다양성을 띠는 사실은 세대관계가 당위적이거나 규범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조건화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만일 세대관계를 구성하는 조건이 중년층과 노부모 세대의 필요, 자원,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세대관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세대관계가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편파적인 이해에 그치기 쉽다. 즉, 세대동거가 조성된 상황에 관계없이, 동거현상 자체를 강한 세대관계의 지표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거를 통하여 노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중년층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중년층이 인지하는 세대간 연대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대관계의 하위차원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그 하위차원이 구체적으로 조합되는 양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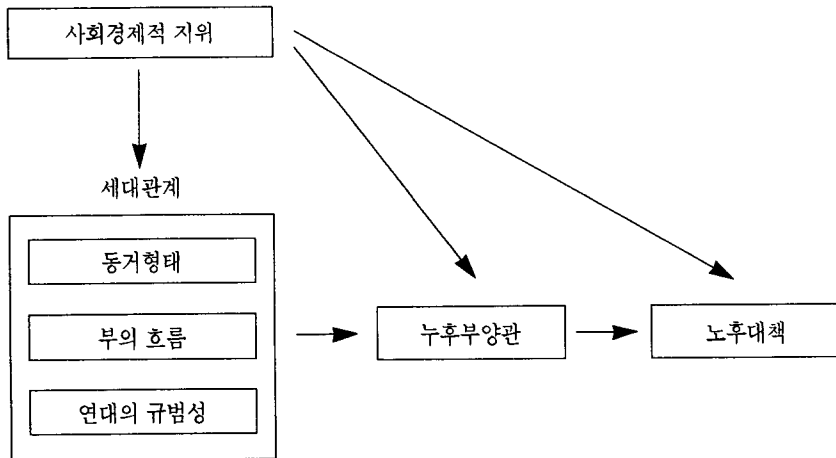
## 2. 가설

이 연구는 이상 살펴본 세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현재 중년층과 노부모가 이루는 세대관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대관계를 근접성, 지원관계 및 지원의 규범성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 하위차원의 조응형태에 기초하여 세대관계를 유형화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근접성, 지원관계, 그리고 노부모부양관에 있어서 전통적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층은 독립적이거나 기능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향이 더 강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소극적일 것이다.

<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세대관계가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연구모형



### III. 자료 및 측정

#### 1. 자료

중년층의 세대관계와 노후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년층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가 1999년 9월 9일부터 10월 5일의 기간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중년층 응답자와 노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세대관계의 특성,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으며, 이 조사의 모집단은 만 40-59세 연령층에 속하는 중년층 남녀이다. 표집은 다단계 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표본의 크기는 1,200명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표집단계에서 성별(남자 50%, 여자 50%), 연령구성별(40대 40%, 50대 60%), 노부모 생존여부별(생존비율이 50%이상) 할당비율을 정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주제가 중년층의 가족부양관과 노후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를 자녀가 있는 실질적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국한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는 중년층의 세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부모를 본가의 부모(또는 시부모)로 한정하였다. 노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2 사례에서 양친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양친 모두에 대한 정보를 개별사례로 간주하여 중년층의 특성과 조응시켰다. 이러한 이중의 관찰사례를 포함하여 노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한 경우의 총 사례수는 864이다.

##### 1) 세대관계

세대관계의 근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부모와의 동거형태를 측정하였다. <표 1>에서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년층은 전체 표본의 2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동거의 비율은 40대보다는 50대에서, 시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김두섭 외, 1999).

세대간 지원관계는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도구적 지원은 병간호, 청소, 가사일, 손자녀 돌보기 등의 도움을 포함한다. 정서적 지원은 집안일 조언, 말벗이나 이야기 상대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 주택자금, 상속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지원관계는 중년층과 노부모가 해당 지원에 대하여 쌍방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쌍방적 지원), 한편에서 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일방적 지원), 그리고 양측 모두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무지원)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세대간의 지원관계는 지원의 내용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도구적 지원에서는 무지원관계가 53.1%로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도구적 지원관계가 약한 것은, 도구적 지원의 대부분이 동거상황과 같은 일상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도구적 지원에서 쌍방간에 지원을 주고받는 비율은 13.9%로서, 일방적 지원관계의 비율 33.0%보다 매우 낮다. 정서적 지원에서는 중년층과 노부모가 서로 지원하는 쌍방지원의 비율이 36.7%로서, 도구적, 경제적 지원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물질적인 지원에 관한 한 물질적 지원에 비하여 노부모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일방적 지원관계가 61.5%로서, 노부모의 경제생활에 대한 중년층 자녀의 지원기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관계의 규범적 차원으로서 중년층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노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년층의 39.2%가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8.9%는 가급적이면 부양하는 것이 좋지만 부양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의 응답은 지원에 대한 규범적 강제성이 강하고, 후자의 응답은 지원의 규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중년층의 세대관계, 노후부양관 및 노후대책

변수 및 범주	사례수	비율(%)
<b>세대관계</b>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175	20.2
별거	689	79.8
도구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향적 지원	120	13.9
일방적 지원	285	33.0
무지원	459	53.1
정서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향적 지원	317	36.7
일방적 지원	247	28.6
무지원	300	34.7
경제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향적 지원	117	13.5
일방적 지원	531	61.5
무지원	216	25.0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부양할 필요가 없다	16	1.9
조건에 따라 부양 못할 수 있다	509	58.9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	339	39.2
<b>노후부양관</b>		
노후 자녀와 동거 희망		
같이 살고 싶다	215	17.9
경제/건강 나쁠 때 같이 살고 싶다	136	11.3
자녀의 생활이 어려울 때 같이 살고 싶다	45	3.8
따로 살고 싶다	804	67.0
<b>노후대책</b>		
노후 경제생활 대책		
준비	932	77.7
준비 안함	268	22.3
노후 신체적 보호대책		
준비	844	70.3
준비 안함	356	29.7

## 2)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

중년층의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의 지표로서는 자신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자녀에게 기대하는 태도 및 경제적 대책을 준비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층의 67.0%가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17.9%에 불과하며, 자신과 자녀의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동거를 기대하는 비율이 15.1%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대책은 보험, 연금, 저축 등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노후의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중년층이나 그 배우자가 신체질환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측정하였다. <표 1>에서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년층의 비율은 77.7%로 집계되었으며, 신체질환보험에 가입한 중년층의 비율도 70.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3)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년층과 노부모간의 세대관계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관련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우선 세대관계와 노후부양관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년층의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 여부, 가구소득, 주관적으로 판단한 경제상태 등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계층지위(SES)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변수들의 구체적인 범주와 분포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년층의 최종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현재 미취업인 경우에는 과거 최장기 종사한 직업)을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무직 및 농어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직업지위에 대해서는 남편의 직업을 대리지표로서 측정하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아울러 남편의 직업이 여성 응답자의 사회계층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년층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생활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표 2〉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및 범주	사례수	비율(%)
<b>교육수준</b>		
초등학교	184	15.3
중학교	256	21.3
고등학교	560	46.7
전문대 이상	200	16.7
<b>현재 직업(또는 전 직업)</b>		
전문/관리직	60	5.0
사무직	126	10.5
판매/서비스직	409	34.1
생산/노무직/무직	565	47.1
농어업	40	3.3
<b>남편의 직업(여성 응답자)</b>		
전문/관리직	49	9.2
사무직	102	19.1
판매/서비스직	177	33.1
생산/노무직/무직	179	33.5
농어업	28	5.2
<b>주택 소유</b>		
소유	997	83.1
비소유	203	16.9
<b>가구소득</b>		
99만원 이하	147	12.3
100-149만원	252	21.0
150-199만원	290	24.2
200-249만원	235	19.6
250-299만원	156	13.0
300만원 이상	120	10.0
<b>주관적 경제상태</b>		
중상층	97	8.1
중층	564	47.0
중하층	396	33.0
하층	143	11.9
<b>사회계층지위(SES)</b>		
0점 미만	449	37.4
0-0.9점	269	22.4
1.0-1.9점	288	24.0
2.0-2.9점	158	13.2
3.0점 이상	36	3.0

교육, 직업, 주택 소유여부,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의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척도를 구성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의 부하값에 회귀하여, 사회계층지위(SES)의 점수를 구성하였다.<sup>1)</sup>

이 연구는 앞에 설정된 가설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층의 성, 연령, 형태의 수, 형제순위 및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원의 욕구와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서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였다. <표 3>을 보면, 노부모의 64.9%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노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부모의 성, 혼인상태와 거주지역 등을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세대관계의 유형

이 연구는 중년층과 노부모의 동거 여부, 세대간 지원관계의 유형, 그리고 노부모 부양관사이의 조합형태에 기초하여 세대관계를 동거/규범형, 동거/기능형, 별거/호혜형, 별거/비호혜형, 그리고 무교환형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표 4>는 이들 각각의 유형을 기준 변수들과 교차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대관계 유형화의 첫 번째 준거가 되는 동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면적인 교류를 조성하므로 어떠한 형태이든지 세대간 지원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지원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교환형의 경우, 노부모와 동거하는 중년층의 비율은 불과 3.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노부모와 동거하는 중년층 사이에도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

1) 사회계층지위(SES) 점수에 대한 각 요인의 부하값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사회계층지위} = 0.44 \cdot (\text{교육}) + 0.31 \cdot (\text{사무직}) + 0.15 \cdot (\text{판매/서비스직}) - 0.43 \cdot (\text{생산/노무직/무직}) \\ - 0.10 \cdot (\text{농어업}) + 0.23 \cdot (\text{주택 소유}) + 0.50 \cdot (\text{가구소득}) - 0.44 \cdot (\text{주관적 경제상태})$$



〈표 3〉 주요 통제변수의 분포

변수 및 범주	사례수	비율(%)
<b>중년층의 특성</b>		
성		
남자	600	50.0
여자	600	50.0
연령		
40-44세	312	26.0
45-49세	168	14.0
50-54세	455	37.9
55-59세	265	22.1
형제의 수		
0-1명	63	7.3
2-3명	231	26.7
4-5명	356	41.2
6명 이상	214	24.8
형제순위		
첫째	315	36.5
첫째 아남	549	63.5
거주지역		
시	920	76.7
읍/면	280	23.3
<b>노부모의 특성</b>		
성		
남자	241	27.9
여자	623	72.1
건강상태		
양호	561	64.9
좋지 않음	303	35.1
혼인상태		
유배우	390	45.1
이혼/사별	474	54.9
거주지역		
시	521	60.7
읍/면	338	39.3

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거 사례 중 일부의 무교환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을 노부모 부양관이 전통적 또는 조건적인가에 따라 동거/규범형과 동거/기능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4〉 세대관계의 유형화

	세대관계의 유형					전체(사례수)
	동거/ 규범형	동거/ 기능형	별거/ 호혜형	별거/ 비호혜형	무교환형	
전체(%)	10.8	8.3	6.9	36.2	37.7	100.0 (864)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100.0	100.0	0.0	0.0	3.1	20.3 (175)
별거	0.0	0.0	100.0	100.0	96.9	79.8 (689)
도구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적 지원	44.1	47.2	68.3	1.0	0.3	13.9 (120)
일방적 지원	51.6	48.6	16.7	59.1	2.2	33.0 (285)
무지원	4.3	4.2	15.0	39.9	97.6	53.1 (459)
정서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적 지원	58.1	55.6	95.0	46.3	6.4	36.7 (317)
일방적 지원	36.6	31.9	0.0	48.2	12.0	28.6 (247)
무지원	5.4	12.5	5.0	5.4	81.6	34.7 (300)
경제적 지원의 교환관계						
쌍방적 지원	24.7	27.8	71.7	8.3	1.5	13.5 (117)
일방적 지원	72.0	63.9	21.7	85.6	42.0	61.5 (531)
무지원	3.2	8.3	6.7	6.1	56.4	25.0 (216)
노부모부양관						
전통적	100.0	0.0	40.0	40.3	29.5	39.2 (339)
조건적	0.0	100.0	60.0	59.7	70.6	60.8 (525)

주: 동거/규범형 - 동거, 쌍방적 · 일방적 지원의 교환관계, 전통적 노부모부양관;

동거/기능형 - 동거, 쌍방적 · 일방적 지원의 교환관계, 조건적 노부모부양관;

별거/호혜형 - 별거, 쌍방적 지원 위주의 교환관계;

별거/비호혜형 - 별거, 일방적 지원 위주의 교환관계;

무교환형 - 무지원 위주의 교환관계.

노부모와 별거하는 중년층은 동거하는 중년층에 비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별거하는 경우에도,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노부모와의 지원관계가 유지되는 비율은 꽤 높다. 이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중 둘 이상의 지원형태에서 쌍방향적 지원관계가 유지되면 세대간 지원관계를 호혜형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지원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무지원 상황인 사례들을 각각 비호혜형과 무교환형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지원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교환관계가 모두 다른 경우는 비호혜형으로 재범주화 하였다.<sup>2)</sup>

따라서 중년층과 노부모가 별거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세대관계는 이들 세 가지 지원형태에 따라 별거/호혜형, 별거/비호혜형과 무교환형으로 구분되었다. 무교환형은 동거 및 별거상황에서 세대간에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가르킨다.

이상을 요약하면, 세대관계는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와 가장 유사한 동거/규범형과, 노부모에 대한 지원기능은 강하지만 노부모부양관이 다소 약한 동거/기능형, 별거상황에서 쌍방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별거/호혜형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별거/비호혜형, 그리고 지원과 노부모부양관 모두에서 세대관계가 약한 무교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에서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거/규범형의 비율은 10.8%이며, 동거/기능형의 비율은 8.3%이다. 동거/규범형과 동거/기능형의 주요한 차이점은 노부모부양관에 있다. 전자는 노부모부양에 대하여 가족의 역할을 규범시하는 반면, 후자는 노부모부양을 상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거/규범형과 동거/기능형은 세 가지 지원관계에 있어서도 다소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 즉, 쌍방향적 지원의 비율은 동거/기능형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일방적 지원의 비율은 동거/규범형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부양 규범이 일방적인 지원관계를 조성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4>를 보면, 중년층과 노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호혜적이거나 비호혜적으로 지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43.1%로서 세대관계의 지배적인 형태를

2) 호혜형과 비호혜형은 그 형태와는 관계없이 지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교환형과 일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지원형태가 모두 다른 경우를 비호혜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룬다. 따라서 비록 대다수의 중년층이 노부모와 별거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별거 상황에서 유지되는 지원관계는 호혜적 관계보다는 일방적 지원관계의 속성을 띠고 있다.

가장 약한 세대관계의 유형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무교환형의 비율은 37.7%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교환형의 세대관계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지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2. 세대관계의 결정요인

〈표 5〉는 세대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기법은 상호배제/경쟁적인 범주들간의 상대적 선호율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 분석에서는 세대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무교환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모형 전체의 설명력은 0.08로 추정되었으며, 적합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5〉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각 범주값에서 무교환형에 대한 해당 세대관계 유형의 상대적 비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해당 세대관계 유형의 로그값비가 독립변수의 속성(범주값)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년층 자녀의 특성과 관련하여 여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된다. 먼저 사회계층지위의 효과를 살펴보면, 동거를 중심으로 한 규범형과 기능형의 지원관계가 이루어질 개연성은 사회계층지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별거시에 지원관계가 이루어질 개연성은 사회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별거 상황에서 호혜형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강하다.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제한되지만, 별거상황에서 비호혜형의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도 사회계층지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지위가 세대간 지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사회에서는 세대간 동거가 빈곤가족의 생활전략으로서 조성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하게

〈표 5〉 세대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동거/ 규범형	동거/ 기능형	별거/ 호혜형	별거/ 비호혜형
	b (s.e.)	b (s.e.)	b (s.e.)	b (s.e.)
<b>중년층의 특성</b>				
성				
남자 (기준: 여자)	0.36 (0.26)	-0.09 (0.28)	<u>1.10</u> (0.32)	0.56 (0.17)
연령				
45-49세	0.01 (0.44)	-0.04 (0.42)	-0.83 (0.47)	-0.46 (0.24)
50-54세	<u>1.17</u> (0.32)	0.40 (0.34)	<u>-0.83</u> (0.39)	-0.25 (0.20)
55-59세 (기준: 40-44세)	0.56 (0.42)	0.08 (0.14)	<u>-1.39</u> (0.59)	<u>-0.77</u> (0.28)
형제순위				
첫째 (기준: 첫째 아님)	0.75 (0.27)	<u>1.07</u> (0.29)	<u>1.51</u> (0.32)	<u>0.39</u> (0.18)
형제의 수	<u>-0.28</u> (0.07)	-0.11 (0.08)	-0.01 (0.09)	0.01 (0.05)
거주지역				
시 (기준: 읍/면)	<u>-1.51</u> (0.34)	<u>-1.48</u> (0.36)	<u>-1.12</u> (0.37)	-0.24 (0.24)
사회계층지위(SEES)	0.01 (0.09)	-0.00 (0.10)	<u>0.28</u> (0.12)	0.12 (0.06)
<b>노부모의 특성</b>				
성				
남자 (기준: 여자)	-0.34 (0.35)	0.09 (0.36)	-0.43 (0.37)	-0.26 (0.21)
혼인상태				
유배우 (기준: 이혼/사별)	-0.36 (0.30)	-0.39 (0.33)	0.43 (0.35)	0.20 (0.19)
건강상태				
양호 (기준: 좋지 않음)	-0.19 (0.26)	0.18 (0.30)	0.22 (0.33)	-0.15 (0.17)
교육수준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이상)	0.29 (0.39)	0.32 (0.41)	0.08 (0.40)	0.12 (0.23)
거주지역				
시 (기준: 읍/면)	<u>0.96</u> (0.31)	<u>0.99</u> (0.33)	-0.11 (0.33)	0.18 (0.18)
상수	-0.25 (0.65)	-1.22 (0.70)	<u>-1.97</u> (0.75)	-0.26 (0.43)
R <sup>2</sup>		0.08		
X <sup>2</sup>		197.6***		
사례수		859		

- 주: 1. 이 다범주 로지스틱 분석에서 세대관계의 기준이 되는 유형화 범주는 무교환형임.  
 2. 밑줄 표시가 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냄.  
 3. \*\*\*  $p < 0.001$ .

부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별거상황에서 자녀의 사회계층지위는 지원의 가용성과 직결되어, 지원관계를 유지할 개연성을 좌우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년층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지원관계의 차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중년층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별거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첫째 자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전통적 태도를 강하게 유지하며 부양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다른 자녀에 비하여 더 크다. 거주지역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이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층에 비하여 가족부양에 대한 규범적 태도와 실제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에서 노부모의 특성은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관계의 유형화에 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특성의 효과가 제한된 것은 아마도 세대관계를 조성하는데 노부모의 필요나 기회의 요건보다는 중년층 자녀의 속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동거/규범형, 동거/기능형, 별거/호혜형, 별거/비호혜형이 지니는 특성을 무교환형의 세대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대관계의 개별 유형들이 지니는 차별성을 충분히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중년층과 노부모의 특성에 따라 세대관계의 각 유형들이 지니는 차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공변인의 속성(범주값)을 달리 상정한 상황에서, 다범주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세대관계의 각 유형의 분포를 추정한 값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 표의 맨 위에 제시된 분포는 공변인의 속성이 평균값을 띠 때 개별 세대관계 유형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 세대관계의 유형을 공변인의 속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무교환형의 세대관계는 여자이고, 첫째가 아니며, 형제가 많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그리고 사회계층지위가 낮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무교환형의 세대관계가 흔하게 나타난다.

별거상황에서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무교환형의 중년층과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지위와 관련해서는 무교환형과 차이를 보인다. 별거상황에서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은 중년층 여성보다는 중년층 남성에서 더 강하며, 사회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6〉 중년층과 노부모의 특성별 세대관계의 유형 분포

	세대관계의 유형					전체
	등거/ 규범형	동거/ 기능형	별거/ 호혜형	별거/ 비호혜형	무교환형	
표본평균(%)	6.3	7.3	5.4	40.2	40.8	100.0
중년층의 특성						
성						
남자	6.4	6.1	7.7	44.6	35.2	100.0
여자	6.0	8.9	3.4	34.3	47.3	100.0
연령						
40-44세	5.0	6.0	9.3	55.6	36.0	100.0
45-49세	6.4	7.0	4.6	36.2	45.9	100.0
50-54세	6.6	9.5	4.1	39.4	40.5	100.0
55-59세	16.8	14.6	6.6	32.1	29.9	100.0
형제순위						
첫째	7.8	11.0	10.9	39.2	31.0	100.0
첫째 아님	5.5	5.6	3.6	39.4	46.0	100.0
형제의 수						
0명	17.4	10.3	5.0	32.7	34.6	100.0
4명	5.2	6.8	5.4	41.2	41.5	100.0
거주지역						
시	5.0	5.8	4.6	40.9	43.7	100.0
읍/면	14.2	15.9	8.8	33.3	27.7	100.0
사회계층지위(SES)						
-4점	7.6	10.4	2.0	31.3	48.8	100.0
3점	5.4	5.6	9.8	44.6	34.6	100.0
노부모의 특성						
성						
남자	5.5	8.6	4.4	36.7	44.9	100.0
여자	6.7	6.8	5.9	41.5	39.1	100.0
혼인상태						
유배우	5.0	5.7	6.6	43.4	39.2	100.0
이혼/사별	7.6	8.9	4.6	37.3	41.6	100.0
건강상태						
양호	6.0	7.9	6.0	38.8	41.3	100.0
좋지 않음	7.0	6.3	4.5	42.7	39.5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6.6	7.6	5.4	40.3	40.1	100.0
중학교 이상	5.3	6.1	5.6	39.1	43.9	100.0
거주지역						
시	8.5	9.9	4.8	39.5	37.4	100.0
읍/면	3.9	4.4	6.4	40.0	45.3	100.0

주: 형제의 수와 사회계층지위(SES)는 연속변수이므로 일부 범주만 제시하였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별거상황에서 부모와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여부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층 남성은 중년층 여성에 비하여 본가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클 것이다. 또한 앞의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별거상황에서 노부모와 지원관계를 유지하는가 여부는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별거/호혜형과 별거/비호혜형의 세대관계는 주로 나이가 적고, 사회계층지위가 높은 중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두 유형의 차이점으로서, 별거/호혜형의 세대관계는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층과 노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더 흔하게 나타나는 반면, 별거/비호혜형의 세대관계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세대관계라 규정할 수 있는 동거/규범형은 나이가 많고, 형제의 수가 적고, 농촌에 거주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띤 중년층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동거/규범형을 조성하는 요인으로서 노부모의 거주지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부모에서 동거/규범형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거주지의 효과가 중년층과 노부모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년층과 노인층의 지리적 이동력이 다른 것에 따른다. 다시 말하여, 노부모보다 자녀세대가 지리적 이동성향이 크며, 그 이동의 종착지는 도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은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층보다 노부모와 따로 살 개연성이 높다. 한편 대부분의 자녀세대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부모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보다 자녀세대와 함께 살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이다.

동거/기능형의 세대관계는 동거/규범형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이가 많고,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층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유형의 차이점으로서, 동거/규범형보다 동거/기능형에서 첫째 자녀여부에 따른 비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첫째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노부모부양에 대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첫째 자녀의 전통적 노부모부양의식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동거/기능형의 세대관계는 사회계층지위가 낮을 수록 그 발생개연성이 높게 나타난다.



### 3. 중년층의 노후부양관과 노후대책

이 연구는 중년층이 현재 노부모와 이루는 세대관계가 중년층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양관 및 노후대책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접성, 지원기능, 노부모부양관에 있어서 전통적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층은 다른 유형의 중년층보다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가 강할 것이며,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7〉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사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분석에 활용된 회귀식은 로지스틱 회귀식이며, 따라서 회귀계수는 각 변수 값에서의 별거선호에 대한 동거선호비의 로그값을 가리킨다. 이 표에서 모형들의 전반적 설명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모형규정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관계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전통적 세대관계인 동거/규범형을 유지하는 중년층의 자녀동거 선호도는 무교환형의 중년층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동거/규범형의 중년층은 무교환형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는 동거, 지원, 규범의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가족의 책임을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지원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중년층은 무교환형의 중년층보다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세대간 동거와 지원은 세대관계에 긴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층이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 저축 등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신체보험에 가입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무교환형의 중년층에 비하여 동거/기능형의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노후경제생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동거/규범형의 중년층은 무교환형의 중년층에 비하여 신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향이 약하다. 노후대책과 관련된 두 지표에 대한 사회계층지위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연금, 저축,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신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중년층의 노후 자녀동거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성				
남자 (기준: 여자)	0.05 (0.15)	0.05 (0.15)	-0.02 (0.15)	-0.03 (0.15)
연령				
45-49세	0.13 (0.22)	0.13 (0.22)	0.18 (0.23)	0.18 (0.23)
50-54세	0.23 (0.18)	0.23 (0.18)	0.24 (0.18)	0.24 (0.18)
55-59세 (기준: 40-44세)	0.03 (0.25)	0.04 (0.25)	0.08 (0.26)	0.08 (0.26)
형제순위				
첫째 (기준: 첫째 아님)	-0.00 (0.16)	-0.00 (0.16)	-0.02 (0.16)	-0.02 (0.16)
형제의 수 거주지역	0.01 (0.04)	0.01 (0.04)	0.02 (0.04)	0.02 (0.04)
시 (기준: 읍/면)	<u>-0.74</u> (0.17)	<u>-0.75</u> (0.18)	<u>-0.74</u> (0.18)	<u>-0.75</u> (0.18)
사회계층지위 (SES)		0.03 (0.06)		0.02 (0.06)
세대관계				
동거/규범형			<u>0.57</u> (0.26)	<u>0.57</u> (0.26)
동거/기능형			<u>-0.73</u> (0.34)	<u>-0.73</u> (0.34)
별거/호혜형			0.48 (0.31)	0.47 (0.31)
별거/비호혜형 (기준: 무교환형)			0.28 (0.18)	0.28 (0.13)
상수	-0.34 (0.29)	-0.36 (0.29)	-0.51 (0.32)	-0.52 (0.32)
R <sup>2</sup>	0.02	0.02	0.03	0.03
$\chi^2$	19.7**	20.0*	36.7***	36.8***
$\chi^2$ (모형 1 vs 2)		0.3		
$\chi^2$ (모형 1 vs 3)		17.0**		
사례수		864		

주: 1. 밑줄 표시가 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냄.

2. \*  $p < 0.05$ ; \*\*  $p < 0.01$ ; \*\*\*  $p < 0.001$ .

〈표 8〉 중년층의 노후 경제생활대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성				
남자 (기준: 여자)	0.17 (0.18)	0.08 (0.19)	0.18 (0.19)	0.10 (0.19)
연령				
45-49세	-0.39 (0.26)	-0.30 (0.27)	-0.40 (0.27)	-0.33 (0.27)
50-54세	-0.12 (0.22)	-0.03 (0.23)	-0.13 (0.23)	-0.07 (0.24)
55-59세 (기준: 40-44세)	-0.81 (0.27)	-0.65 (0.28)	-0.81 (0.28)	-0.69 (0.29)
형제순위				
첫째 (기준: 첫째 아님)	-0.08 (0.19)	-0.07 (0.20)	-0.09 (0.20)	-0.08 (0.20)
형제의 수	-0.05 (0.05)	-0.01 (0.05)	-0.05 (0.05)	-0.02 (0.05)
거주지역				
시 (기준: 읍/면)	0.33 (0.21)	0.17 (0.21)	0.34 (0.21)	0.17 (0.22)
사회계층지위(SES)		<u>0.34</u> (0.07)		<u>0.35</u> (0.07)
세대관계				
동거/규범형			-0.00 (0.30)	0.01 (0.31)
동거/기능형			<u>0.83</u> (0.41)	<u>0.88</u> (0.42)
별거/호혜형			-0.24 (0.35)	-0.40 (0.36)
별거/비호혜형 (기준: 무교환형)			0.36 (0.22)	0.30 (0.22)
상수	<u>1.68</u> (0.36)	<u>1.58</u> (0.36)	<u>1.53</u> (0.39)	<u>1.47</u> (0.39)
R <sup>2</sup>	0.02	0.05	0.03	0.06
χ <sup>2</sup>	14.8*	41.0***	23.4*	50.2***
χ <sup>2</sup> (모형 1 vs 2)		26.2***		
χ <sup>2</sup> (모형 1 vs 3)		8.6		
χ <sup>2</sup> (모형 2 vs 4)		16.8***		
사례수		864		

주: 1. 밑줄 표시가 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냄.

2. \*  $p < 0.05$ ; \*\*\*  $p < 0.001$ .

〈표 9〉 중년층의 노후 신체적 보호대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b (s.e.)	b (s.e.)	b (s.e.)
성				
남자 (기준: 여자)	-0.00 (0.18)	-0.10 (0.18)	-0.01 (0.18)	-0.09 (0.18)
연령				
45-49세	-0.13 (0.28)	-0.06 (0.28)	-0.10 (0.28)	-0.03 (0.29)
50-54세	<u>-0.74</u> (0.20)	<u>-0.68</u> (0.21)	<u>-0.61</u> (0.21)	<u>-0.57</u> (0.21)
55-59세 (기준: 40-44세)	<u>-1.37</u> (0.26)	<u>-1.26</u> (0.27)	<u>-1.28</u> (0.27)	<u>-1.21</u> (0.27)
형제순위				
첫째 (기준: 첫째 아님)	-0.11 (0.18)	-0.11 (0.18)	-0.10 (0.19)	-0.10 (0.19)
형제의 수	-0.08 (0.05)	-0.05 (0.05)	<u>-0.10</u> (0.05)	-0.07 (0.05)
거주지역				
시 (기준: 읍/면)	<u>0.41</u> (0.20)	0.27 (0.20)	0.36 (0.21)	0.20 (0.21)
사회계층지위(SES)		<u>0.30</u> (0.06)		<u>0.30</u> (0.07)
세대관계				
동거/규범형			<u>-0.93</u> (0.27)	<u>-0.94</u> (0.28)
동거/기능형			0.26 (0.35)	0.32 (0.36)
별거/호혜형			0.14 (0.39)	0.03 (0.40)
별거/비호혜형 (기준: 무교관계)			-0.03 (0.21)	-0.09 (0.21)
상수	<u>1.85</u> (0.34)	<u>1.78</u> (0.34)	<u>2.08</u> (0.37)	<u>2.00</u> (0.38)
R <sup>2</sup>	0.05	0.07	0.07	0.10
χ <sup>2</sup>	44.3***	66.3***	59.8***	81.5***
χ <sup>2</sup> (모형 1 vs 2)		22.3***		
χ <sup>2</sup> (모형 1 vs 3)		15.5**		
χ <sup>2</sup> (모형 2 vs 4)		15.2**		
사례수		854		

주: 1. 밑줄 표시가 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냄.

2. \*\*  $p < 0.01$ ; \*\*\*  $p < 0.001$ .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40-50대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부모와 중년층 자녀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관계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중년층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세대관계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관과 노후대책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대관계의 하위부문을 세대간 근접성, 지원기능, 그리고 노후부양관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부문사이의 조응형태에 기초하여 세대관계를 유형화하였다. 즉,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부양관이 강한 동거/규범형, 노부모와 동거하지만 노부모부양관이 다소 약한 동거/기능형, 노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별거/호혜형과 별거/비호혜형, 그리고 지원기능과 노부모부양관 모두가 약한 무교환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별거 상황에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형태이며, 다음으로 무교환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 세대관계를 의미하는 동거/규범형의 비율은 10.8%이며, 노부모부양관은 다소 약하지만 동거생활과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동거/기능형의 비율이 8.3%에 그친다.

이러한 분포를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중년층과 노부모사이에는 여전히 지원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그 지원이 동거나 전통적인 노부모부양관에 의해 조성된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년층의 일부분만이 전통적인 노부모부양관을 견지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양상으로는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원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중년층의 비율이 작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지원관계는 전통적 노부모부양관이나 동거상황에 기초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변주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세대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조성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동거/규범형의 세대관계는 중년층의 연령, 형제순위, 형제의 수, 거주지역 등에서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중년층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년층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계층지위의 효과가 특히 주목되는데, 동거를 중심으로 한

지원관계는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별거상황에서 유지되는 지원관계는 사회계층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사회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중년층은 별거상황에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족부양의 규범성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계층지위는 세대간의 지원관계에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규범적 강제성이 약한 상황에서 중년층의 사회계층지위는 세대간 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현재 노부모와 이루는 세대관계가 중년층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양관 및 노후대책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접성, 지원기능, 노부모부양관에 있어서 전통적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층은 다른 유형의 중년층보다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가 강할 것이며,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대관계가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동거, 강한 지원관계, 강한 노부모부양관으로 집약되는 동거/규범형의 중년층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며,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약하다. 한편, 노부모부양관이 약하지만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중년층은 무교환형의 중년층과 비교해서도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사가 더 약하며,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는데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규범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인 특징이 강하다. 그리고 기능적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의 대다수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자립성을 강조하고 자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약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세대간 동거와 이에 기초한 세대간 지원관계는 세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가족부양관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이 계속 약화될 것을 감안할 때, 세대간 지원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연대가 전 생애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애를 통하여 세대간 정서적 연대와 상호부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혼란의 증가, 소자녀화, 결손가족의 증가 등 가족의 안정성과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현재 복지정책이나 일부 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족 기능화에 대한 노력은, 개인주의의 확산, 경제적 위기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이념적인 동원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 가족 기능화의 제고와 세대연대의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할 사항은, 세대관계를 좀더 체계적인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유형화하지 못한 점이다. 세대관계와 같은 이념적 개념은 엄밀한 기준 하에서의 지표개발과 관찰된 하위지표들 사이의 조응성에 대한 명료한 분석작업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연속형의 요인은 요인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쉽게 구성할 수 있지만, 범주형의 요인에 대한 통계적 기법(latent class analysis 등)은 그다지 널리 소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보다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세대관계의 심층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가족수준에서의 세대관계는 세대간 부의 분배를 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구조 등 사회구조적 환경에 의해서 더욱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 변화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관계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단편적인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족부양 기능 및 세대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세대관계의 기회와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시 환경체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지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과 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 권태환, 김태현과 최진호(편) (1995), 《한국의 인구나 가족》, 일신사.
- 권태환과 박영진 (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 외(편), 《한국의 인구나 가족》, 일신사.
- 김두섭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5(4): 202-235, 통일원.
- 김두섭, 박경숙과 이세용 (1999), 《중년층의 세대관계와 노후부양관》,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와 조성남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 모선희 (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Pp. 81-119.
- 박경숙 (1999), "노인의 생활세계와 삶의 질,"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Pp. 365-404.
- 신용하와 장경섭 (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 은기수 (1997), "한국 인구의 변동," 한국사회학회(편), 《한국 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Pp. 76-104.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부 모순," 《철학과 현실》 22: 51-67.
- 장경섭 (1995), "노인과 효의 사회화," 한국일보 사설, 1995/10/2.
- 정경희 외 (1998),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홍봉 (1998), "장애노인 가족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재, 차홍봉, 이가옥, 서혜경, 윤현숙과 박경숙 (1999), 《장기요양보호노인의 가족수발자의 욕구분석》, 미간행.
- 통계청 (197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199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1999), 《1998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가족, 복지, 노동부문》, 통계청.



日本總務處 (1997). 《老人の 生活と意識》, 中央法規.

- Aquilino, W.S. (1990), "The Likelihood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05-419.
- Bengtson, Vern.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ern Bengtson and Andrew Achenbaum(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Pp. 3-24.
- Cooney, T. (1989),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A Comparison of Divorced and Widowed Women," *The Gerontologist* 29: 779-784.
- DaVanzo, J. and Angelique Chan (1994),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 with Their Adult Children?" *Demography* 31: 95-114.
- Dowd, James (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 Eggebeen, David and Dennis Hogan (1990), "Giving between Generations in American Families," *Human Nature* 1: 211-232.
- Gouldner, A.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Hogan, Dennis, David Eggebeen, and Clifford Clogg (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428-1458.
- Hill, Reuben, and D.A. Hansen (1960), "The Identification of Conceptual Frameworks Utilized in Family Study," *Marriage and Family Living* 12: 299-311.
- Kwon, Tai-Hwan (1984), "Family System as a Determinant of Fertility in Traditional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8: 39-54, Seou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Litwak, Eugene (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organ, Philip and Kiyosi Hiroshima (1983), "The Resistance of Extended Family in Japan: Anachronism or Alternative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69-281.
- Park, Keong-Suk (1998),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vergence of Individualism and Familism?*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Park, K.S., Ikki Kim, Hiroshi Kojima (1999), "Unbalanced Aspects of Family Change in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8: 93-115.
- Rossi and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Shanas, Ethel (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15.
- Silverstein, Merril and Vern.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460.
- Stoller, Eleanor (1985), "Exchange Patterns in the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Elderly: the Impact of Reciprocity on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335-342.
- Tsuya, Noriko and Linda Martin (1992),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Japanese and Attitudes toward Inheritance," *Journal of Gerontology* 47: S45-S54.

abstract

---

## Generational Relationship of the Middle Aged to the Elderly Parents and Their Attitudes on Old-Age Security

Doo-Sub Kim · Keong-Suk Park · Se-Yong Lee

Using a representative data about the middle aged and their elderly parents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 on old-age security attitudes and behavior of the middle aged. Based on three aspects of intergenerational ties, such as geographic proximity, transaction of support, and normative attitude toward family support, five types of generational relationship are identified in this paper: coresidence-normative, coresidence-functional, distant-reciprocal, distant-supportive, and non-transactional.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the middle aged live separately from their elderly parents, but keep generational transactions of material and non-material support. Exchange behavior of support remains stronger among the middle aged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It is also found that the middle aged with coresidence-normative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han those of non-transactional type to emphasize family support for their own old-age security. By contrast, those of coresidence-functional type are less likely than those with non-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to cater to family support. These findings imply that generational relationship remains to serve the elderly's need but its traditional prescription as coresidence or traditional family norm becomes weak.

Key Words : the middle aged, intergenerational relation, attitude on old-age security, family support, behavior for old-age security